



순천만정원 해바라기

순천시,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 건설 세계적 생태도시 꾸리찌바에서 배운다

‘지구에서 환경적으로 가장 올바르게 사는 도시’, ‘세계에서 가장 현명한 도시’, 전세계에서 가장 도시계획이 잘 된 도시... 친환경적 도시 계획과 실천으로 세계 생태 도시로 주목받고 있는 브라질 꾸리찌바(Curitiba)시를 수식하는 말이다. 석산(石山)을 개발한 도시였으나 정원을 만들어 생태도시로 거듭났다. 30년전 시민 1인당 녹지면적이 5㎡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10배인 50㎡에 이를 정도로 시민들의 ‘삶의 질’이 달라졌다. 이 도시의 교통과 녹지·환경정책 등 종합계획은 서울시를 비롯해 미국 L.A. 파나마 시티, 필리핀 세부시 등 많은 도시의 도시개발 계획에 영향을 미쳤다.



꾸리찌바시의 도심 풍경

교통·환경 등 삶의 질 높여 ‘행복한 정원도시’로

순천시가 세계적인 생태도시인 브라질 꾸리찌바시와 손을 잡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 건설에 나선다. 조충훈 순천시장을 비롯해 총 8명으로 구성된 방문단은 최근 10박11일간 브라질 파라나주의 주도(州都)인 꾸리찌바시 도시계획 연구소와 대중운송 교통공사 등을 둘러 생태·환경 정책과 교통정책 등을 벤치마킹했다. 또한 조 시장은 구스타프 프루엣(Gustavo Fruet) 꾸리찌바 시장과 우호교류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꾸리찌바시의 성공사례를 순천시에 적용할 계획이다.

순천시는 30년 전부터 체계적인 환경, 교통, 토지이용 계획에 따라 ‘생태도시’로 거듭난 곳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순천시는 생태도시인 꾸리찌바시의 환경정책, 선진 대중교통체계, 도시계획, 에너지정책 등을 연구하게 된다. 또 세계에서 가장 큰 습지인 ‘판타날(Pantanal) 보존지구’(면적 1350㎢)와 같이 순천만의 효율적 보존 방법을 찾을 계획이다.

꾸리찌바시는 서울시 대중교통의 모델이 된 지속가능한 대중교통 시스템과 1인당 50㎡에 달하는 녹지면적, 폐기물 관리정책, 생태적인 도시계획 등은 세계 많은 도시의 롤 모델로 벤치마킹이 줄을 잇고 있는 곳이다.

조충훈 시장 등 현지 방문단 생태적인 도시계획 벤치마킹

굴절버스 도입·일방통행제 늘려

대중교통 활성화·보행권 확보

쓰레기 재활용, 정책에 반영하고

도심 속 정원문화 살리기 모색

이에 따라 순천시가 벤치마킹하게 될 꾸리찌바시의 교통·환경 정책 등이 주목받고 있다.

꾸리찌바시는 대중교통의 혁명 도시로 불릴 만큼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이다. 대중교통을 반영한 대중교통 중심의 토지이용계획을 수립, 도심주요 간선 축에 BRT(간선 급행버스=Bus Rapid Transit) 전용도로를 만들었다.

도심 내 대부분의 도로를 일방통행으로 운영해 차량 소통은 물론 보행 및 자전거 통행에도 편리한 동선을 만들었다. 도심의 상가지역은 ‘차 없는 거리’로 만든 점도 눈여겨 볼 점이며, 170km가 넘는 자전거 도로도 조성돼 있다.

무작정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지하철을 건설하는 게 아니라 시속 30km의 버스 전용차선을 운영해 교통량의 30%를 해결할 수 있었다. 소요된 예산은 지하철 건설비용의 80분의 1에 불과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굴절버스 도입이나 환승 시스템의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면서 “주택가나 상업지역의 생활도로가 혼잡해 안전한 보행공간 확보를 위한 일방통행제를 적극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순천시 70%를 재활용하는 친환경도시=환경에 대한 순천의 정책 변화도 예상된다. 꾸리찌바시는 ‘쓰레기가 아닌 쓰레기 프로그램’을 진행해 도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중 70%가 시민들에 의해 재활용되고 있다.

또 재활용 쓰레기는 제철의 신선한 농산물로 교환할 수 있는 ‘녹색 교환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난 1970년대부터 시작된 녹색정책으로 꾸리찌바시에는 30여 개의 공원과 숲이 조성돼 있다. 이들 공원과 숲은 스포츠, 레저를 즐기는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도심 곳곳에 꽃을 심어 토요일마다 거리미술제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진행하는 것도 꾸리찌바시의 자랑이다. 이는 순천만 정원박람회의 성공으로

정원 문화가 정착되고 있는 순천시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좋은 성공사례다.

브라질 남서쪽의 판타날 습지도 순천만 보존을 위한 소중한 교과서가 될 전망이다. 지난 2000년 유네스코(UNESCO)에서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판타날 습지는 약 15만 종의 생물이 살고 있어 생태 연구가 활발하다.

이 밖에 꾸리찌바시의 환경교육 프로그램도 순천시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꾸리찌바시는 도시계획 단계와 추진 과정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있고,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펼치고 있다. 지난 1992년부터 환경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해 학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시작했다. ‘봄 시냇물 프로그램’에 따라 학생들이 시청 관계자와 함께 수질을 감시하고 있다. 이러한 창조적인 도시는 도시계획기이자 꾸리찌바 시장을 3년 역임한 자이메 레르네르(Jaime Lerner)를 통해 구현됐다.

조충훈 시장은 “도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조달과 교통 정책이 무엇인지를 벤치마킹해 도입을 하겠다”면서 “꾸리찌바시의 폐기물 관리 정책과 생태적인 도시계획, 지속가능한 도시교통 시스템 등도 순천시 행정에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꾸리찌바는



- ▲위치 : 브라질 남동부 파라나(Parana) 주도(州都)
- ▲인구 : 185만명(2013년 기준)
- ▲면적 : 430.9km(광주광역시와 비슷)
- ▲고도 : 해발 900m
- ▲기후 : 습도가 많은 준아열대성 기후(여름평균 19.7도, 겨울 13.4도)
- ▲도시특징 : 친환경적 도시계획과 실천으로 세계 생태도시로 주목.
- ①세계에서 가장 도시계획이 잘 된 도시
- ②간선 급행버스 시스템(BRT) 도입으로 시민 85%이상 대중교통 이용
- ③시민 1인당 녹지면적 54㎡
- ④쓰레기 70%이상 시민들에 의해 재활용



꾸리찌바의 명물 '굴절버스'

‘행복동 사업’ 확대 운영

매곡동 2호·향동 3호 지정

순천시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행복동 사업’을 확대운영한다.

순천시는 지난 3월 풍덕동을 ‘행복동 사업’ 1호로 지정·운영을 시작한데 이어 매곡동을 2호, 향동을 3호로 선정해 복지 서비스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행복동 사업’은 동장과 사회복지사, 방문간호사, 사례관리사 등이 조를 이뤄 홀몸노인과 취약계층 등 보살핌이 필요한 세대를 주 1~2회 방문하는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마을 변호사와 주치의 역할을 담당하고 일자리 상담사와 생활기동반 등을 운영하는 등 ‘따뜻한 복지’를 실천하고 있다.

시는 풍덕동을 대상으로 그동안 ▲방문상담 386건 ▲건강상담 251건 ▲일자리상담 31건 ▲생활민원처리 45건 등의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 밖에도 알코올 중독으로 이웃에게 피해를 주거나 혼자 위험에 노출돼 있는 주민을 찾아 상담을 한 후 정신보건 센터에 연계시켜 주는 등 타기관 연계 서비스도 15건을 처리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행복동 추가 확대는 지난 6월 보건복지부 복지가능 강화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7400만원의 지원을 받아 민간 전문인력 4명을 채용해 운영함으로써 더 많은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행복동 사업을 7개소로 확대해 효율적인 행복 전달 체계와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 나눔 공동체’를 조성토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 고향 안전 내가 지킨다’

안전모니터 봉사단 117명 위촉

순천시민들이 지역의 안전사고 예방 지킴이로 나섰다.

순천시는 지난 1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안전모니터 봉사단’ 117명(순천시지회장 김만석) 위촉식을 가졌다. 위촉식을 마친 봉사단원들은 시청에서 버스 종합터미널까지 가두 캠페인을 벌이며 시민들에게 여름철 각종 안전사고예방 홍보물을 나눠주는 것으로 첫 활동을 시작했다.

봉사단은 민간주도로 재난과 안전예방 활동을 수행하며, 공무원 지원 등을 통해 안전문화 확산과 실천운동을 전개하는 민간자율 봉사단체이다.

봉사단은 올 상반기 공모를 통해 24개 읍·면·동 주민들과 미인 풀·순천 풀 봉사단원 등으로 구성됐다. 지역업체에서부터 주부까지 다양한 직업과 연령군이 참여하고 있다.

봉사단은 앞으로 시내 전역에서 생활주변의 안전 위해요소 제보와 안전문화 홍보 캠페인을 통해 지역의 안전 지킴이로 활동하게 된다.

순천=예정열기자 jyj@kwangju.co.kr

No.1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생각하는 기업! 유대복상사

여러분의 생활속에 함께합니다!

신록의 계절! 싱그러운 시작!!

- ▶ 금속구조물
- ▶ 창호공사
- ▶ 도로표지판
- ▶ 휨스

유대복상사 DEABOK

전남 순천시 저전길 86(인제동)
Tel. (061)744-4225 Fax. (061)741-6269
E-mail. chunji6268@hanmail.net